

인공지능 문화강국, 문화행정부터 바꾼다

- 문체부 전 직원 대상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공모전’ 개최, 우수 제안 13건 선정
- 규정 검색부터 빅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 발굴, 현장 적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확산하기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5. 18.~7. 12.)’을 개최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10건 등 우수 제안 13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를 개선한 사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행정 혁신 아이디어 등,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총 65건의 사례·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최우수상·우수상, 반복 업무 줄이고 업무 속도 높인 아이디어가 차지

최우수상은 ‘문체부 멀티 페르소나 업무 도우미 지피티(GPTs)’가 차지했다.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는 맞춤형 지피티(GPTs)를 활용해 「청탁금지법」, 국고보조금, 복무, 예산, 여비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한 방대한 행정 규정을 한데 모아 학습시키고 업무 분야별로 ‘청렴 도우미’, ‘보조금 도우미’ 등 역할을 부여해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직접 검색하고 해석해야 했던 시간을 수 초 내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등록명세서 자동생성기’와 ‘외신 보도 빅데이터 분석’ 사례가 선정됐다. ▲등록명세서 자동생성기는 기존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서 고정항목으로 출력되는 소장품 등록명세서 대신,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에 올리기만 해도 기관별로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된 기관 맞춤형 등록명세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별 소장품 관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신 보도 빅데이터 분석’은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읽고 분석해야 했던 외신 기사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이다. 2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 약 6만 5천 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 비슷한 내용의 기사끼리 묶고, 국가별·시기별로 주요 보도 내용과 논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외신 빅데이터 분석 규모와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저작권 관련 국회 의안 자동 모니터링, 언론 보도 분석 효율화, 인공지능 이미지를 활용한 재외한국문화원 전시 공간 기획, 예산·결산 자료 자동 작성, 규정 개정을 추적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위키’, 쉬운 말 변환 보도자료 생성, 불법 저작권 사이트 증거 자동 채증 시스템 등 현장 밀착형 제안 10건에 장려상을 수여한다.

9. 3. ‘장관-직원과의 대화’에서 공모전 시상, 우수 제안 실행 지원 전 직원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지속 추진

문체부는 9월 3일(목)에 열리는 ‘장관-직원과의 대화’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고 수상자가 직접 우수 제안을 발표·시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처 내부 소통망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공유’ 게시판에 우수 제안을 등록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우수 제안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 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특강, 도시락 회의(브라운백 미팅), 직장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화인공지능(AI)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통해 문화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및 행정업무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면 실습교육과 문체부 기관 맞춤형 인공지능 챔피언 양성 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문체부 직원들이 인공지능을 업무에 직접 적용해 보며 활용 역량을 키웠길 기대”한다며, “인공지능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다루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조직문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번에 발굴한 우수 제안들이 부처 전반의 업무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공모전 우수 제안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장	고영진 (044-203-2421)
		담당자	사무관	하강미 (044-203-2424)



구분	소속/ 이름	제목	주요 내용
최우수 *AI솔루션 구독료(1년) +상급 30만원	지능정보화담당관/ 김영민	문화체육관광부 멀티 페르소나 업무 도우미 GPTs 제작	○도입 배경 - 청탁금지법, 국고보조금, 복무, 여비/예산 등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 규정·매뉴얼 조회 및 숙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업무 분야별로 페르소나를 지정해 직원들이 묻는 질문별로 대응 페르소나를 선택해 주고, 정확한 해설과 근거 규정을 제시하는 GPTs를 추진 ○활용 내용 - ChatGPT 서비스 중 사용자가 직접 개발 가능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AI 서비스(GPTs)를 기반으로 업무별 맞춤형 AI 비서(청렴, 보조금, 복무, 예산여비 도우미) 지식베이스 및 프롬프트 구축 - 질의에 따라 페르소나를 자동 변환하고, 답변 시 명확한 법령 및 지침 근거 조항을 제시하도록 설계 ○주요 성과 - 규정 검색 및 해석 시간을 수 초 내로 단축시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정확한 규정 준수 지원 - 현재는 4개의 페르소나만 지정하였으나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지식베이스로 구축하고 페르소나를 확대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어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우수 *상급 20만원	국립한글박물관/ 김나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기관 맞춤형 등록명세서 자동생성기	○도입 배경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구형 브라우저 의존 및 고정양식 인쇄에 따른 기관별 맞춤 서식 출력 지연/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활용 내용 - ChatGPT, Claude와의 대화형 개발을 통해 이용자 PC 브라우저 내에서 전문 검색 엑셀과 PDF 원본 사진을 매핑하는 경량 단일 HTML 웹도구를 직접 구축 - 외부 서버 전송 없이 브라우저 내에서만 데이터가 처리되도록 설계하여 보안성 확보 - AI 생성 결과물은 담당자 검수 후 자료 등록 업무에 활용 및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다시 AI에 피드백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현장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안정화 ○주요 성과 - 별도 예산 수립이나 외주 개발 없이 현업 담당자가 직접 개발 및 시스템이 이미 제공하는 산출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명세서 작성 시간 단축 및 구형 환경 의존 해소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엑셀 항목과 등록명세서 필드의 매핑만 조정하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의 서식에도 적용할 수 있어 타기관 확산 기대

구분	소속/ 이름	제목	주요 내용
우수 *상금 20만원	해외뉴스분석팀/ 원수빈	AI 활용 외신보도 빅데이터 분석	○도입 배경 - 연간 수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기 시계열 외신분석 업무시 인간 분석가의 내용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과 임베딩 기반 군집화, 개체수준 감성 분석을 도입 ○활용 내용 - LLM(ChatGPT-5.4) 기반 임베딩 군집화(6.5만 건 기사 좌표화) 및 개체수준 감성 분석(ELSA)을 적용해 고유명사별 논조 및 PI(President Identity) 5점 척도 정량 평가 - 6.5만건의 외신 기사를 임베딩 기반 바텀업 방식으로 자동 군집화 및 다층적 정량·정성 변수 추출 - PI(President Identity) 및 주요 고유명사에 대한 감성 평가, 논조 변화 추이 정량화 ○주요 성과 - 2주 만에 6.5만 건 빅데이터 분석 완료 등 분석 소요시간 대폭 단축 - 국가이미지 변화 체계 분석을 통해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장려 *5만원 상당 상품권	저작권정책과/ 박형민	AI 기반 저작권 관련 국회 의안 자동 모니터링 및 중요도 분류	- OpenClaw 및 GPT 기반 AI Agent로 국회 의안 원문(HMP) 자동 다운로드/분석 및 온톨로지 가중치 기반 중요도(A~X) 분류보고서 생성 - 600건 이상 의안 탐색 시간 절감, 인접 법안(AI, 데이터 등) 쟁점 조기 포착 및 국회 대응 이력 관리
	분석과/ 류지현	AI 기반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정책 현안 분석 자료 작성 효율화	- 매일 20여 개 매체 기사 및 시사 토크 인터뷰 전문을 AI에 입력하여 주제별 카테고리 자동 분류, 쟁점별 범주화 및 표 정리 수행/ ChatGPT, Claude, Gemini를 활용해 매체별 기사 카테고리 자동 분류, 쟁점별 세부 재구성 표 형식 정리 및 인터뷰 핵심 요약 수행 - 기사 분류 및 초안 작성 시간 30% 이상 단축, 보고서 양식 일관성 유지 및 긴급 현안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대중문화산업과/ 권순재	나만의 AI 장관님	- 보도자료, 추사 말씀자료 등 기존 공개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페르소나(AI 장관님)를 구축하여 정책 메시지 작성 시 참고 - 타 소관 분야 및 과거 논의 연계성 확보,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 유지 및 자료 검색 시간 절감
	국제문화사업과/ 오주연	AI 이미지로 용역업체 없이 작업해요	- 재외한국문화원 공간 내 상설 전시공간 조성 및 상품 큐레이팅 시 chatGPT로 정교한 공간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Gemini로 다양한 3D 전시 공간 실사 이미지를 생성검토 - 외주 용역 없이 초기 기획 방향 구체화 및 업체 선정 전 본부 문화원 간 공간 기획 방향 사전 조율 용이성 확보
	한국정책방송원/ 한정만	AI 기반 예산·결산 자료 자동 통합 작성 시스템 구축	- 사업명, 코드 등 정형 데이터는 기존 DB 매핑으로 고정하고, 변동사항 등 비정형 텍스트 작성에 AI를 활용하여 예산·결산 양식(10여 종) 자동 작성 - 반복적 단순 복사·붙여넣기 작업 절감 및 문서 간 수차내용 불일치 오류 방지

구분	소속/ 이름	제목	주요 내용
장려 *5만원 상당 상품권	국립국어원/ 김 소 희	규정지침의 변화를 추적하는 'LLM 위키	- 개정이 빈번하고 정합성이 중요한 규정 문서를 대상으로, LLM이 스키마(규약)를 기반으로 스스로 규칙 지식을 구조화·갱신하는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시점별 규정 질의응답 및 개정 이력 추적 자동화 및 54개 복무규정 실증 결과 정합성 오류 0건 달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손명건	AI 기반 '쉬운 말 변환 보도자료' 자동 생성 및 대국민 정보접근성 혁신	- 발달장애인, 느린학습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용어·긴 문장의 보도자료를 AI(Claude, ChatGPT, Gemini 등)로 '쉬운 말(Easy Read)' 자동 변환 - 초안 변환 시간 1분 이내 단축, 보도자료 배포와 동시 제공으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법적 의무 이행
	국립국악원/ 장 민 준	AI-OCR 및 NLP 기반 행정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자산화를 통한 문체부 전용 생성형 AI 구축	- (1단계) AI-OCR/NLP로 실물/전자 계약서 핵심 정보 자동 추출·DB 매핑 → (2단계) 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안 확보된 문체부 전용 sLLM 구축 - 수작업 입력을 검수 중심 업무로 전환, 민감 데이터 외부 유출 방지 및 보안 기반 지능형 행정 구현
	지능정보화담당관/ 임정민	엑셀 취합 자동 프로그램 (행 추가 형식)	- 수작업 복사·붙여넣기 시 수시간 소요되는 다수의 시트 및 기관의 엑셀파일을 코딩 없이 ChatGPT 대화만으로 일괄 자동 취합하는 실행파일(exe) 제작 - 150여 개 시트 취합 소요 시간을 150분에서 3분 미만으로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 전용호	저작권 스트리밍 불법사이트 CCTV 범죄일람·저작권 정보채증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례	- ChatGPT·Gemini 코딩을 활용하여 ① 불법 사이트(COIV) 게시판에서 범죄일람표 기초 자료 자동 추출 ② IMDb API를 통해 국내외 저작물·저작권사·저작권가 정보 자동 보완 ③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했던 8,000건 이상 게시물 화면 채증 자동화하는 세 가지 도구(ExtractList.py, TMDb_en/TMDb_ko.py, ExMovie.py)를 구축 - 대규모 증거 채증 자동화 해외 공조 수사용 데이터 신속 확보 및 고부가가치 수사 집중